

동아제약 주가예측 변수 “주목”

2007년 4/4분기 영업이익 43.7% 증가 ... 규제 본격화 불확실성 확대

동아제약이 2007년 4/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월10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아제약은 전날보다 3.85% 오른 10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아제약 주가는 2007년 8월 1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으로 영업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면서 이후 주가가 9만원-10만원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2007년 4/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한 1658억원, 영업이익은 43.7% 증가한 207억원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10만원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조운정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은 뛰어난 신약 개발능력과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대형화, 집중화라는 제약업종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15개에 달해 규모의 경제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제약기업보다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2003년 위염치료제 스틸렌, 2005년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이어 2008-09년 천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등 신약을 잇따라 내놓는 뛰어난 제품 개발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2008년 동아제약이 매출이 7017억원, 순이익 575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로 16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동아제약의 뛰어난 제품 개발력과 수익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제약업종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가 추가로 오를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SK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의 2009년 주당순이익을 4117원으로 정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PER 24배에 달해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주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약가인하, 유통부문 조사 등 정부 규제가 2008년부터 본격화되면 제약업종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증권은 동아제약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에 목표주가 11만원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0>